

여수 해상서 139t급 트롤어선 침몰...10명 사망·실종

한국인 8명 등 14명 탑승 흑산도로 이동 중 참변...구조·조난신호 없어 구명선 탈출 외국인 선원 4명 구조...“배 급격히 기울어 바다 뛰어들어” 해경 “대형 트롤어선 2.5m 파도에 침몰 이례적”...기상악화로 수색 난항

여수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t급 트롤어선이 침몰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9일 오후 7시 기준)됐다.

해경은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고선박이 풍랑주의보에도 출항이 가능한 대형선박이었다는 점에서 사고원인이 의문을 낳고 있다.

◇구조신호 없이 침몰=부산선적 ‘제22서경호’가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9일 여수해경은 이날 오후 여수해경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제22서경호는 VHF 교신 조난신호 없이 급박하게 침몰했다”고 밝혔다.

서경호는 14명의 승선원(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을 태우고 전날 낮 12시 50분께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했다. 애초 23일 낮 12시 20분께 감천항으로 귀항할 계획이었다.

이날 새벽 서경호를 포함한 5척의 선단은 흑산도로 갈치와 병어를 잡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선단의 어선들은 레이더에서 서경호가 보이지 않자 새벽 1시 40분께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과 민간어선 등이 사고해역에 도착해 2시간여 만에 표류중인 비상 구명선을 발견했다. 구명선에는 선장 A(66)를 비롯해 5명이 탑승해 있었다. 구조당시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원 3명도 추가 발견됐으나 모두 숨진 뒤였다.

서경호 선체는 사고현장에서 400m 떨어진 해저

? 트롤어선
해저에 투입한 저인망 그물(awl, 트롤)을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선(60~140t급 규모)이다. 보통 14~16명의 선원이 일하며, 오징어·갈치·민어·삼치 등 다양한 어종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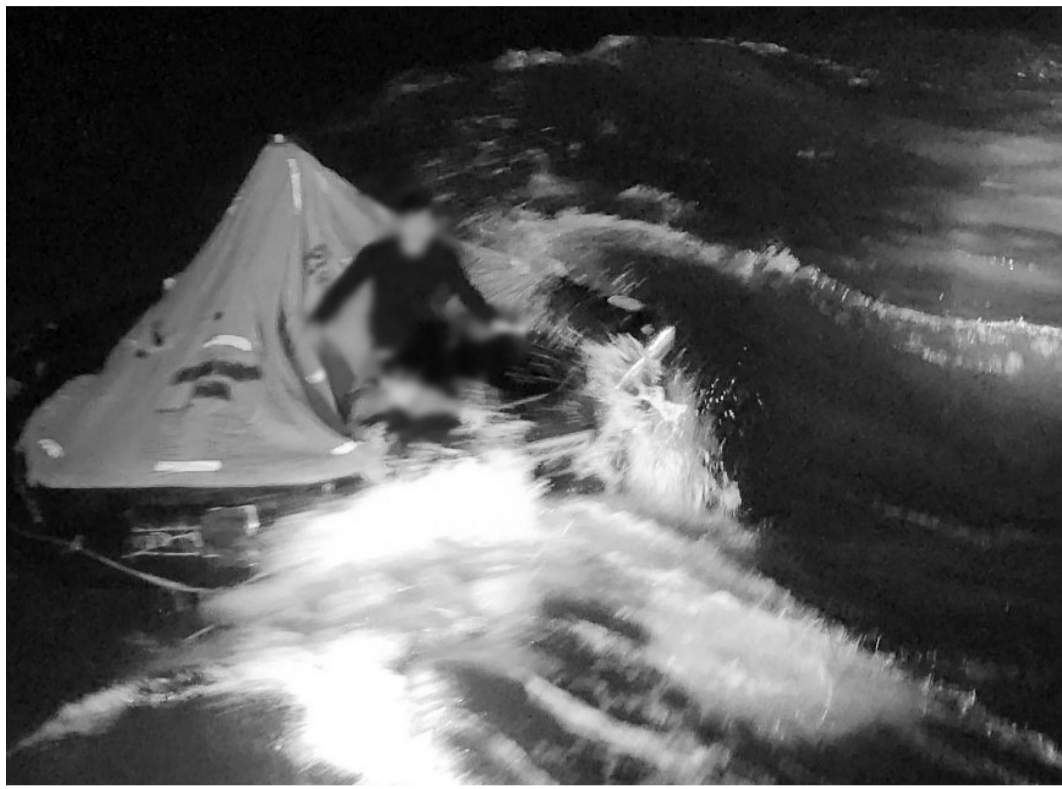
(수심 80m)에서 발견됐고, 선체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선원이 발견됐다.

사고 당시 바다에 뛰어든 뒤 구명선에 올라탄 나머지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은 경비함정에 구조돼 해경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베트남출신 선원은 “당시 급박하게 발생한 사고로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사고 당시 배에 최소 3명 이상의 선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전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후 배가 급격히 기울어 바다로 뛰어내렸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올라탄 구명선이 선원이 직접 작동 시킨 것인지, 자동이탈장치로 인해 펼쳐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너울성 파도의 높이가 2.5m였고 바람은 초속 12m 정도로 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호는 풍랑주의보에도 출항이 가능한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급작스런 침몰이 이례적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9일 새벽 3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선박 승선원들이 구명뗏목을 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당시 서경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은 부분적으로 끊김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경호의 구조나 조난신호는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정도 파도에 선단을 구성하는 139t 정도의 선박이 구조신호조차 보내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침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3시께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기상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아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색에 나선 5t급 해경의 고속단정이 전복돼 해경 6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해군과 협조해 실종자 야간 수색도 이어갈 계획이다.

◇실종선원 가족 오열= 9일 오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수협 수산물 청정위판장 2층에 마련된 가

족대기실은 침통함만이 흘렀다. 이날 새벽 사고 소식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부터 여수로 달려왔다.

가족대기실을 찾은 실종자 4명의 가족 14명은 “제발 살아있어줘”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다가도, 사고 15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눈물을 쏟아냈다.

오전 11시께부터 부산에서 여수로 달려온 항해장 B씨의 가족들은 해가 질 무렵까지 가족 대기실을 떠나지 못했다.

언제 남편의 소식을 들려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리를 지킨 B씨의 아내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B씨의 아들 역시 침울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온 B씨의 여동생과 매제 역시 서로를 끌어안으며 “괜찮을거야. 살아있을거야”라고 속삭였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다른 실종자의 가족들도 오후 2시께부터 차례로 도착했다. 한 여성은 가족대기실을 차고 들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해경과 여수시 관계자들에게 “추가 구조자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없다”는 대답에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해서 걸려오는 가족들의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전하고 흐느꼈다. 이들은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 달라”고 연신 흐느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수해양경찰서와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찾아 “제22서경호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원의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불가능할 듯

법원 “전씨 사망따라 채권 소멸”...연회동 자택 소유권 이전 절차 불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회동 자택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정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회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연회동 자택 본체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이중 1338억원이 집행됐고 미납금은 867억여 원(39.3%)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추징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전씨 측은 장남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재 867억원이 추징금으로 남았다.

현재 전씨의 재산은 이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연회동 자택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 양산동에 있는 500억원 상당의 임야, 서울 이태원의 준아트빌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대법원도 2022년 연회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박근혜 의원직 유지...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박근혜(광주 광산갑)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000여만원)보다 28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선거 비용에 초과 지출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형 부작으로 선거 관련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의원이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당선 위해 범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 당선 무효로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낮 광주 도심 모텔서 불...50대 여성 투숙객 숨진 채 발견

한낮에 광주도심의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투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광주서부경찰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6층짜리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근 객실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화재

가 난 객실 내부에서는 A(여·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7분여만에 진화됐다.

A씨는 장흥 출신으로 지난달 초부터 장기투숙 중이였으며, 화재 당시 홀로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지체장애인 원룸에 감금 폭행

광주남부경찰, 20대 입건 조사

지체장애인을 원룸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0대 A씨를 중감금지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8일까지 광주시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체장애인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A씨의 권유로 지난달부터 20여일간 범행장소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을 목격한 A씨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금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